

## J프로젝트 휘방꾼 농식품부

### 45억불 외자 추진 송천지구 유리온실 단지 '알박기' 강행

#### MB 정부 지방 외자 유치 독려 정면 역행

농식품부가 이미 외자유치가 이뤄진 J프로젝트(사남해안 관광레저 도시 조성사업) 개발예정지 중 한 곳인 '송천지구'에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정부의 외자유치 독려에 정면 역행하고 있다. 특히 45억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를 추진 중인 '송천지구'에 이달 중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고 다음 달부터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등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농식품부의 유리온실 단지 사업 강행

은 J프로젝트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안에 '송천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미국 트러스(TRUSS)그룹의 차이나텔사가 주관사로 참여하는 SPG가 설립될 예정이다. 송천지구 개발사업을 전담하게 될 SPG에는 트러스그룹 자본과 함께 이스라엘과 중국 자본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SPG가 설립되면 사업추진을 맡게 될 사무소가 다음달 서울에서 문을

열고 곧바로 전체면적 15.4km에 달하는 송천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해 9월 이전까지 마무리, 정부에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낼 계획이다. 송천지구의 법정자본금은 5천만 달러로 개발계획 승인신청 이전에 SPG에서 납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송천지구에 대한 외자 유치는 지난해 7월 트러스 그룹의 차이나텔사와 대만 건설사인 '후주'사와 45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12월 사업추진을 위한 관광사업자 5천만 달러의 외자유입 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송천지구

규모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는 농림수산식품부와도 연말까지 협의를 계속해 외국자본으로 진행되는 송천지구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최근 송천지구에 들어설 대규모 농업회사 공모에 나서는 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농업회사 공모에는 22개 회사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농식품부는 4월 말까지 우선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농식품부의 사업 강행은 현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에 정면 역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지식

경제부 차관 주재 회의를 통해 달라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를 적극 독려하고 있어 농식품부의 입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송영중 전남도 투자정책국장은 "정부는 지난해 지식경제부 차관 주재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를 적극 독려하는 등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면서 "특히 이 자리에서 전남도가 송천지구의 대규모 외자 유치 계획을 밝힌데 대해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농식품부와 협의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알림

#### U대회 광주 유치 위한 '희망 콘서트'

광주일보사는 5인조 그룹 동방신기 등 국내 유명 가수들을 초청, '광주 희망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유치 기원을 위해 마련한 '광주 희망 콘서트'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동방신기를 비롯, '어쩌다' 등을 히트시킨 여성 4인조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아름다운 하모니를 자랑하는 남성 트리오 V.O.S, 세련된 무대 매너와 춤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신인가수 태군이 히트곡을 열창합니다.

또 비보이 그룹 '매드 펍크'와 '무빙스텝'이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합니다. 청소년 등 광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2009년 3월 28일(토) 오후 7시
- 장소: 광주무등경기장 축구장
- 주최: 광주일보사, 데일리안
- 주관: 공연나인터테인먼트
- 예매처: 광주일보사, 인터파크, 티켓링크
- 공연문의: (062) 220-0541, 1544-0943

# 東方神起

光州日報社



## 해냈다! 대한민국 4강



한국야구대표팀이 18일 오후(한국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펠코파크에서 열린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 2라운드 일본과의 경기에서 4-1로 승리해 4강 진출을 확정 후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윤석민 전화 인터뷰·관련기사 18·19면 /연습뉴스

### “공사 방해 말라” 가처분신청 냈다 추진단, 5월단체 상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18일 옛 도청 별관철거 반대 농성중인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추진단은 이날 "아시아 문화전당 공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광주지법에 이같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가처분 신청에서 ▲5월 단체들의 공사 방해금지 ▲공사현장 접근금지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는 천막농성장과 별관을 덮은 검은 천을 제거토록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5월 단체들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금을 물게되는 등 법률적 제재가 따른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국비 반영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4대 강 마스터 플랜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오는 5월 이전까지 해당 실·국별로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비 반영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역경제권 선도 거점대학 선정

### “호남 4개대 매년 200억 지원”

#### 최상철 균발위장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8일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 "호남권에서 4개 대학이 정부 지원 거점대학으로 선정, 집중 육성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뷰 5면) 최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5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뒷받침할 '선도 산업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선도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거점 대학별로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호남권 대학의 숫자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어 "정부의 해안점경지역

발전 정책인 초광역개발사업에 사업이 포함될 '남해안 선(SUN)벨트 사업'을 가장 먼저 착수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으로 사업계획과 구상을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건설 구상에 대해서는 "광주~목포간 호남고속철 노선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타당성 검토를 권고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이 현안을 포함시켜 추진하는 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벨트 권역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이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영산강 배수감문 확장 뱃길 복원

#### 전남도 마스터플랜...섬진강 포함 12조5천억 투자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과 섬진강에 '생명'과 '풍요'를 불어넣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간추려 졌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18일 영산강·섬진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총 66개 사업에 1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영산강 살리기'는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로 ▲하천정비 사업 2조1천624억원 ▲홍수·가뭄 예방사업 1조9천536억원 ▲영산포구 재개발 및 배수감문 확장 등 사업에 549억원 ▲영산강 문화·유적발굴과 관광 해양복합 테마랜드 조성 등 경관개발 사업 2조1천366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양대 강 살리기 사업의

'섬진강 살리기'는 재해예방과 수질보전, 경관개발 사업 위주로 총 3조4천366억원의 투자 계획이 수립됐다. 사업별로는 ▲하도 정비와 하천 제방 보강 등 치수대책사업 2천365억원 ▲곡성과 구례·순천·광양지구 수변공원 조성 등 수질보존 사업 1조635억원 ▲섬진강·보성강 강변도로와 관광 해양복합 테마랜드 조성 등 경관개발 사업 2조1천366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양대 강 살리기 사업의

### 좋은날은우리가함께만드는것입니다

좋은날은우리가함께만드는것입니다. 좋은날은우리가함께만드는것입니다. 좋은날은우리가함께만드는것입니다.

